

교역



무한항해! 글로벌 가야!

가야 바다에서의 미션 / 서영주(김해여고)

신참을 위한 교역상식 한 스푼! / 이은지(김해여고)

무역 몬스터-사라진 무역품 / 김영서(중앙여중)

해반천의 상인 / 조현민(분성중)

책으로 배우는 가야의 교역 / 이현기(삼정중)

가야 바다에서의 미션

서영주 김해여자고등학교 2학년

조상들의 삶과 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설립한 국립김해박물관의 보물창고에 들린 김해초등학교의 친구들은 보물창고를 둘러보기 위해 신석기시대의 배에 탑승한 순간 미션이 주어졌다. 보물창고를 둘러보는 동안 총 5개의 퀴즈를 맞히면 배가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는 미션을 받고 첫 번째 퀴즈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됐다.

첫 번째 퀴즈는 바로 ‘화산이 없는 남해안에서 ‘흑요석’이 발견되는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친구들과 힘을 합쳐 일본과의 교역을 통해 흑요석이 남해안에서 발견됨을 알아내고 두 번째 미션을 위해 배를 이동시켰다.

이번에 배를 세운 곳은 변한시대의 보물들이 있는 곳이었다. 제일 먼저 붓이 눈에 띄었다. 두 번째 퀴즈는 ‘이 붓으로 무슨 글자를 썼을까’이었다. 가야가 성립되기 전인 변한시대에는 아마 한자를 썼을 것 같았다. 간단히 두 번째 퀴즈까지 성공을 하고 변한시대와 관련된 보물 몇 가지를 더 둘러본 뒤 본격적으로 가야에 대해 알아보러 배를 이동시켰다.

가야의 보물이 있는 구역으로 들어오자마자 주어지는 세 번째 퀴즈는 ‘가야가 주변국과 교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물건을 찾아라!’는 것이었다. 퀴즈에 잠시 당황하지만 지금처럼 옛날에도 돈이 중요했을 것이란 생각에, 지금의 화폐와 같은 역할을 한 덩이쇠를 선택해 무사히 세 번째 퀴즈도 해결했다.

남은 두 개의 퀴즈는 창고의 2층에 있기에 친구들과 함께 2층으로 이동했다. 그 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토기였다. 만든 사람의 이름을 새겨놓은 토기를 본 뒤 금관가야, 아라가야 등 각각 모양이 다른 토기를 모아 놓은 곳을 지나려 할 때 네 번째 퀴즈가 주어졌다. ‘후기 가야연맹의 우두머리 국가는 대가야인가, 금관가야인가’란 퀴즈였다. 전기 가야연맹의 우두머리가 금관가야라는 사실을 아는 친구가 있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이젠 마지막 퀴즈를 위해 더 힘차게 배를 이동시켰다.



배모양토기

마지막 퀴즈가 주어진 곳은 가야의 교역을 보여주는 보물들이 많았다. 몇 가지 보물을 살펴보다 보니 마지막 퀴즈가 주어졌다. 열심히 퀴즈를 해결해온 것에 대한 보상인 듯 마지막 퀴즈는 매우 쉽게 느껴졌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토기의 모양’을 묻는 퀴즈에 ‘배 모양’이라고 답한 뒤 배에서 내릴 준비를 했다.

보물창고의 처음에 탄 배는 신석기시대의 작은 배였지만 퀴즈를 잘 맞힌 덕분에 친구들이 내릴 때 배의 모습은 가야시대에 교역을 하던 큰 배가 되었다. 배를 타고 보물창고를 돌아보며 가야의 교역에 대해 알아 본 김해초등학교의 친구들은 앞으로 가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하며 국립김해박물관의 보물창고 여행을 마무리하였다.

신참을 위한 교역상식 한 스푼!

이은지 김해여자고등학교 2학년

오늘은 신입 관리들의 교육을 하는 날이다. 앞으로 중국과 일본과 교역할 때 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알려주기로 했다.

가야가 있던 곳은 돌을 갈아서 도구를 만들던 신석기 시대부터 일본과 교류가 많았던 지역이다. 그 증거로 남아있는 흑요석을 보여주기로 했다. 주로 백두산이나 일본의 규슈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우리 가야 지역의 흑요석은 일본 규슈에서 들여온 것이다. 반짝거리는 흑요석은 유리와 비슷한 성질의 돌이라서 부서졌을 때 유리처럼 날카롭게 부서진다. 이 성질을 이용해 칼이나 화살촉으로 많이 이용한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인 조몬토기를 보여주었다. 조몬토기는 일본의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이다. 겉면에 보이는 울퉁불퉁한 굴곡은 대다수 조몬 토기의 특징인 새끼줄 무늬이다.

옛날에 썼던 배를 보여주었다. 나중에 우리가 타고 교역할 배와 비교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 배는 교역을 위한 것이라기 보단 낚시를 하는데 쓰인 것 같다. 이 배는 통나무를 반으로 잘라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배 밑바닥의 넓이를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는 배지만 그래도 옛날부터 우리 가야



흑요석화살촉

지역이 물과 가까운 나라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다.

옛날 관 속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교역에 대해 이야기 해 주기로 했다. 관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면 칠기와 붓, 손칼 등이 있다. 붓과 손칼을 보면 글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야에는 가야만의 문자가 없기 때문에 주로 한자를 쓰는 데 사용된다. 중국과 교류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이다.

옛날 지배층이 사용했던 물건에서도 교역의 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다. 바로 청동거울이 그 물건인데, 청동거울은 빛이나 태양, 별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을 비추는 용도 보다는 제사용으로 많이 쓰인다. 그리고 내가 보여줄 부분은 청동거울의 뒷면인데 뒷면의 무늬를 보면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것인지, 언제 수입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청동거울은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 온다. 청동거울의 뒷면에도 한자가 적혀있다.

교역을 통해 들여온 물건들을 보면 확실하게 해상왕국 가야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야에서 발견되는 중국과 일본의 물건들을 보여주기로 했다. 가야보다 전에 있었던 변한 사람들이 교역을 통해 가져온 오수전과 가야에서 교역을 통해 가져온 개오지 조개는 중국의 화폐이다. 그리고 야요이토기는 일본 야요이 시대의 토기이다. 가야에서 이렇게 중국의 화폐와 일본의 토기가 함께 발견되는 것을 보면 가야가 국제 무역항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우리 신입 관리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가야는 철이 참 풍부한 나라이고 철을 다루는 기술도 아주 발달해 있다. 철은 교역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 철로 다양한 물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철을 가져가려고 애쓴다. 우리나라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철을 덩이쇠의 형태로 만들어 제

공하고 있다. 덩이쇠는 무역을 할 때 화폐나 금괴처럼 쓰인다. 특히 일본은 철을 생산하는 기술이 없어서 덩이쇠를 꼭 가져간다. 그리고 덩이쇠는 크기와 모양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고 보통 10개씩 묶여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버린 조개껍데기 속에서도 교역을 찾아볼 수 있다. 패총(조개껍데기 무덤) 속에는 중국 신나라 때 사용했던 동전인 화천과 중국 거울의 조각 그리고 앞에서 봤던 야요이토기가 있는데, 이것 보면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가야를 다시 느낄 수 있다.

생활용품인 토기를 굽는 ‘가마’에서도 교역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처음부터 가마를 사용해서 토기를 굽지는 않았다. 처음엔 그냥 불을 피워 놓고 그 위에 잘 빚은 토기를 올려 구웠다. 그렇게 구우면 열이 공기 중으로 많이 퍼지기 때문에 높은 열에서 토기를 구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구워진 토기는 무르고 색이 붉다. 토기가 잘 부서져서 더 좋은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다른 나라의 방법도 참고하다가 중국에서 가마 기술을 들여와 가마를 만들었다. 가마를 이용해서 토기를 구우면 열이 일정한 공간 안에 갇혀 있게 되어서 온도를 높게 할 수 있고, 높은 온도에서 구운 토기는 단단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가마 기술을 일본이 배워갔다. 배워간 기술로 일본사람들이 만든 토기를 ‘스에키토기’라고 부른다.

가마뿐만 아니라 토기에서도 교역이 보인다. 내가 보여 줄 토기들에는 특이하게도 글자나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것들은 일종의 브랜드나 상표 같은 것이다.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길 수도 있지만 교역할 때 사용하기 위해 새길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의 나라가 아닌 여러 지역으로 나뉘었던 가야는 가야끼리도 교역을 한다. 각 가야들 마다 모양이 다른 굽다리 접시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굽다리 접시를 통해서 서로 교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아라가야의 접시엔 불꽃무늬의 구멍이 뚫려있는데, 만약 금관가야에서 불꽃모양의 구멍이 난 아라가야의 토기가 발견된다면 아라가야와 금관가야가 교역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석기 시대의 배보다 발전한 형태인 가야의 배는 나무판들을 이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배의 밑면을 더 넓게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안정적이다. 다들 넓은 배에 물건을 가득 실어서 다른 나라로 떠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최근 가야에서 쓰이는 물건들을 보면서 교역에 대해 이야기 해 줄 것이다. 먼저 북방 초원 지대의 청동술은 우리가 중국(낙랑)과 교역하면서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로만글라스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이 로만글라스는 먼 곳에서 왔다. 가야에서는 로만글라스를 직접 가져올 만큼 바다를 통해 멀리 가지 못하지만 중국은 저 멀리 지중해의 유럽과도 교역을 한다. 중국에 들어온 뒤에 우리나라까지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가야에 사는 외국인들이 가져왔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은 바람개비 모양의 청동기를 볼 것이다. 일본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이 청동기는 주로 가족으로 만든 방패를 장식하던 도구다.



유리조각(로만글라스)

설명을 끝내고 앞으로 신입들이 무역 담당 관리로 잘 활동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기 위해 간단한 테스트를 할 것이다. 세 문제 정도 낼 건데 잘 맞춰주면 좋겠다. 앞으로 배를 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글로벌하고 능력 있는 관리로 성장하길 바란다.

무역 몬스터 - 사라진 무역품

김영서 김해중앙여자중학교 2학년

교역도감: 우리는 이제 ‘무한항해, 글로벌 가야’ 모험을 시작합니다. 총 10개의 섬에서 교역도감에 있는 교역물품들을 모두 획득해야 합니다. 획득한 교역물품은 몬스터 볼에 넣어야 하고, 교역도감에는 물품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교역도감을 참고해서 교역물품들에 대해 알아보시다. 지금부터 지우가 교역물품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지우: 처음 우리가 가 볼 곳은 ‘물고기도 잡고, 맛바꾸기도 하는 섬’이에요. 길 가다보니 약간 검붉은 모양이 보이는 돌맹이가 보여요. 도감을 보니 이 돌맹이는 일본 조몬토기라고 하는데 원래는 화려한 불꽃 무늬였다고 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걸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한반도에서 발견 된 것을 보아 일본과 우리나라가 교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몬스터볼: 첫 번째 교역물품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우: 둘러보는 중 바로 앞에서 반짝거리는 돌맹이가 보이네요. 혹시 보물일까요? 가까이 다가가보니, 이걸 화산지대에서 나는 것으로, 주로 백두산이나, 일본에서 나는 흑요석이네요. 그런데 신석

기 시대 때, 한반도에서 발견된 것을 보아. 우리는 신석기 시대 때부터 일본과의 교역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흑요석 원석에는 결이 있어서 깨지면 날카로운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흑요석격지이고, 이걸 좀 더 작고, 날카롭게 만든게 흑요석 화살촉이라고 해요.

몬스터볼 : 두 번째 교역물품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우: 그런데 ‘어떻게 신석기 시대 때부터 일본과 물건을 바꿨을까?’ 생각하다보니 두 번째 섬이 있는 바다에 도착했어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는 곳이었는데 배들이 물건들을 나르고 있는 것이 보여요. 아! 일본과 물건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배를 타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도감을 보니 이 배는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생각되는 배 조각이에요. 아마도 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아가 일본도 가고, 물고기도 잡았어요.

몬스터볼 : 세 번째 교역물품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우: 세 번째 섬은 ‘나무에 윤기 나는 색깔 옷을 입히는 섬’이에요. 여기서 색깔 옷은 옷칠을 말하는 거예요. 옷은 옷나무를 자르면 나오는 끈적끈적한 액체인데 원래는 흰색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검붉은색으로 변하는 즙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물건들이 거의 검붉은색이 나죠? 이 물건들은 필기구예요. 중국과 일본과 교역을 한 물품인데 여기 붓, 대나무 조각, 손칼은 오늘

날 연필, 종이, 지우개 역할을 해요. 이것은 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때는 세종대왕님이 없었겠죠? 그래서 글자는 한자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 대나무 조각에서 한자가 적혀져있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중국과 교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몬스터볼 : 네 번째 교역물품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우: 여기는 ‘풍부한 철로 다양한 물건을 만들다’라는 섬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물건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아까 처음에 풍부한 철로 다양한 물건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바로 철이에요. 여기에 보면 덩이쇠인데 덩이쇠는 어떤 것일까요? 덩이쇠는 쇳덩이를 얇게 두드려서 만든 철판으로,

도끼나 창과 같은 철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예요. 쉽게 말해서 덩이쇠는 지금의 돈이에요. 물건을 사거나 할 때 돈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천원, 만



덩이쇠

원을 어떻게 구분해요? 색깔을 볼 수도 있고, 크기나 모양을 보잖아요. 삼국시대 때도 돈을 크기, 모양, 무게로 구분을 했어요. 우리는 한 장, 두 장 이렇게 돈을 세었으면 이 때는 덩이쇠를 10개 단위로 묶은 채로 돈을 세었어요. 이 덩이쇠를 사용한 결과 주변 나라의 귀중한 물건이 많이 들어왔어요.

몬스터볼 : (달그닥 달그닥) 간단한 퀴즈를 풀어야 몬스터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우: 덩이쇠가 10묶음이 있으면 몇 개일까요? 정답은... 100개!

몬스터볼 : 다섯 번째 교역물품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우: 이제부터는 같은 가야끼리도 서로 교역했다는 유물들을 볼 거예요. ‘조개가 쌓이고 또 쌓이는 섬’에서는 말 그대로 조개들이 무척 많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해안이나 강 주변에 살던 선사시대 사람들이 버린 조개나 굴의 껍데기가 쌓여서 무덤처럼 이루어진 것인데, 조개무덤이라고 불려요. 다른 말로 패총이라고 해요. 가야가 여러 지역으로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야의 해안지역에서만 발견되어야 하는 패총이 바다와 멀리 있는 다른 가야에서도 발견이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가야와 가야끼리 서로 교역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패총은 서로 같은 나라끼리도 지역별로 교역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어요.

몬스터볼 : 여섯 번째 교역물품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우: ‘글과 기호를 사용하는 섬’에서는 가야 사람들도 옛날이었지만 글과 기호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자와 비슷한 글자가 하나 있지요? 이건 지금의 상표 같은건

데 만약, 나이키 옷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나이키의 제품이라는 걸 알아요? 바로, 나이키라는 상표를 보고 알 수 있는거죠? 이처럼 가야 사람들도 토기를 만든 사람이나 집단을 표시하기 위해 글자를 썼어요.

몬스터볼: 일곱 번째 교역물품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우: ‘쇠를 부리는 사람들’에서는 송풍관이 있어요. 송풍관은 용광로라는 불을 지피는 곳 안에 바람을 넣어주던 관을 말해요. 백제가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힘이 되어 준 물건이지요. 왜냐하면 일본과 가야가 송풍관을 필요로 해서 백제와 많이 교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본과 가야에서도 송풍관이 발견되었는데 백제의 송풍관과 모양이 아주 비슷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송풍관도 교역을 했다는 증거물이 될 수 있어요.

몬스터볼: 여덟 번째 교역물품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우: ‘바다를 건너서’에서는 맨 먼저, 이 푸른 빛나는 것은 우리가 한번도 이곳까지 오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교역을 하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와 교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나라와 한 것일까요? 바로 힌트는 이 유리의 이름이 로만글라스예요. 로만글라스에서 중국을 거쳐 로마에서 가져온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중국을 통해 로마라는 먼 나라까지 교역하는 범위를 넓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몬스터볼: 마지막 교역물품을 획득하였습니다.

교역도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교역물품을 획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가야시대의 교역물품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해반천의 상인

조현민 분성중학교 2학년

어머니께

어머니, 몸은 안녕하신지요.

저는 지금 일본에 와서 상인들이 묵는 여관에 와 있어요. 저는 일본에서 덩이쇠(철정)를 가지고 와서 방패를 장식하는 바람개비 모양의 청동기와 바꾸었어요. 일본에서도 가야와 같이 덩이쇠가 화폐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방패꾸미개는 일본인들이 악한 것을 모두 물리쳐 준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상인에게 개오지조개와 오수전 이라는 것을 받았습시다. 개오지조개는 중국의 옛날 상나라에서 화폐로 사용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오수전은 중국의 한나라에서 화폐로 사용하는 것이라 하구요.



방패꾸미개

그리고 오늘 중국 상인도 만났습시다. 중국 상인이 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하여 따라가 보았더니 서양에서 가져온 잔이라며 화려하고 맨질맨질한 잔을 보여 주었어요. 역시 중국은 신기한 물건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나라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며 청동술을 보여주었어요. 자세히 보니 제가 예전에 낙랑에 가서 가져온 청동술과 비슷하었어요. 그는 자신의 나라에서 부피를 재는데 사용하는 도구라며 청동세발술도 보여주었어요.

이제 가야에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에 돌아갈 때는 예전에 조상들이 화살촉으로 사용하기 위해 흑요석을 얻으로 갈 때

이용 했던 뱃길로 가려고 합니다.

바다에서 해반천으로 들어가 물건들을 들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책으로 배우는 가야의 교역

이현기 삼정중학교 2학년

한 마을에 오성이라는 아이와 한음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오성이네 집은 마을에서 제일가는 부자였다. 하지만 한음은 오성과 반대로 매우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다. 어느날 오성은 학교에서 한음이라는 아이를 알고 친해지기 시작한다. 하루는 자기 집에 있는 책을 한음에게 빌려주었다. 한음의 집은 가난해서 책 살 돈도 없었기 때문에 책을 빌려준 오성에게 고마워한다. 이렇게 매일 오성은 한음에게 몇 권의 책을 빌려주면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였다. 보통 오성이 빌려준 책은 가야의 역사에 관한 것이었는데, 한음은 이 책들을 아주 재미있게 보면서 가야의 역사에 대해 많이 알기 시작한다.

오성: “아~ 아버지는 맨날 재미없는 책만 읽으라고 하셔서 짜증나”

한음: “왜? 재미있잖아, 이건 가야의 교역에 관한 책이던데 정말 재미있어.”

오성: “어디보자.. 이 검은돌은 뭐지?”

한음: “이건 흑요석이라는 건데 화산지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돌이야. 우리나라에는 화산지대가 없으니까 아마 일본에서 들고 온 돌인 것 같은데?”

오성: “뭐? 그럼 그때도 비행기가 있었어?”

한음: “그때는 과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아마 배를 타고 갔을 꺼야.”

오성: “아~~ 그럼 이건 뭐야?”

한음: “이건 청동거울인데 제사용으로 쓰였대.”

오성: “근데 이게 교역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한음: “청동거울의 뒷 면의 무늬를 보면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것인지, 언제 들어온 것인지를 알 수 있어.”

오성: “어! 이거 교과서에도 나온 유물 아니야? 이름이 덩이쇠던가?”

한음: “맞아~ 이 덩이쇠로 철검이나 농기구를 만들었어. 덩이쇠는 크기, 모양, 무게를 비슷하게 만들어 화폐나 금괴처럼 사용했어.”

오성: “어? 이 페이지를 보니까 아라가야의 토기는 불꽃무늬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금관가야에서도 똑같은 무늬의 토기가 발견됐다는데? 그럼 가야끼리도 교역을 했다는 거야?”

한음: “맞아~ 관찰력이 대단한데?”

오성은 우쭐하며 다음 페이지를 넘긴다.

오성: “이 조개 같은 것은 뭐야?”

한음: “조개 맞아. 개오지조개라는 것인데 주로 열대지방의 얕은 바다에 사는 조개로, 일본 오키나와에서 들어온 거야.”

오성: “어? 이 물통은 뭐야? 이것도 토기야?”

한음: “아니 저건 청동세발솥이라는 건데 중국에서 제사와 같은 의식에 사용하거나 어떤 물품의 부피를 재기 위한 그릇이래.”

오성: “가야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활발한 교역을 했구나!”



청동세발솥

이렇게 오성과 한음은 가야의 교역에 대해 더 자세히 알면서 우정도 더 커져갔다.



우리들의 행복한 박물관

“나는 도슨트!” 소개

활동사진



“나는 도슨트” 소개

교육

기간 | 2014. 10. 11(토) ~ 12.27(토) 격주 토요일 14:00~17:00 / 총 7회

대상 |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2학년 30명

내용 | 문화재 조사 및 전시해설 주제 선정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스토리보드 작성 및 스크립트 작성

청소년 도슨트 자원봉사 활동

활동명 | 2015년 겨울방학 “어린이를 위한 전시해설”

기간 | 2015. 1. 2(금) ~ 1. 31(토) 1일 4회(10:00, 11:00, 14:00, 15:00)

내용 | 토기, 전쟁, 의례, 생활, 교역 등 5가지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해설 활동

수료식

기간 | 2015. 2. 7(토) 14:00~16:00

내용 | 도슨트 활동 평가 및 수료증 배부

제6기 우리들의 행복한 박물관 - “나는 도슨트”



오리엔테이션



박물관 전시해설사와 만남



모듬활동(주제선정 및 스토리 보드작성)





문화재 조사 및 스크립트 작성



2015년 겨울방학 “어린이를 위한 전시해설”



흙그릇, made in 가야



아이언맨! 가야를 지켜줘



타임머신 타고 무덤 속으로



1박 2일 가야에서 살아남기



무한항해! 글로벌 가야!



"제6기 우리들의 행복한 박물관-나는 도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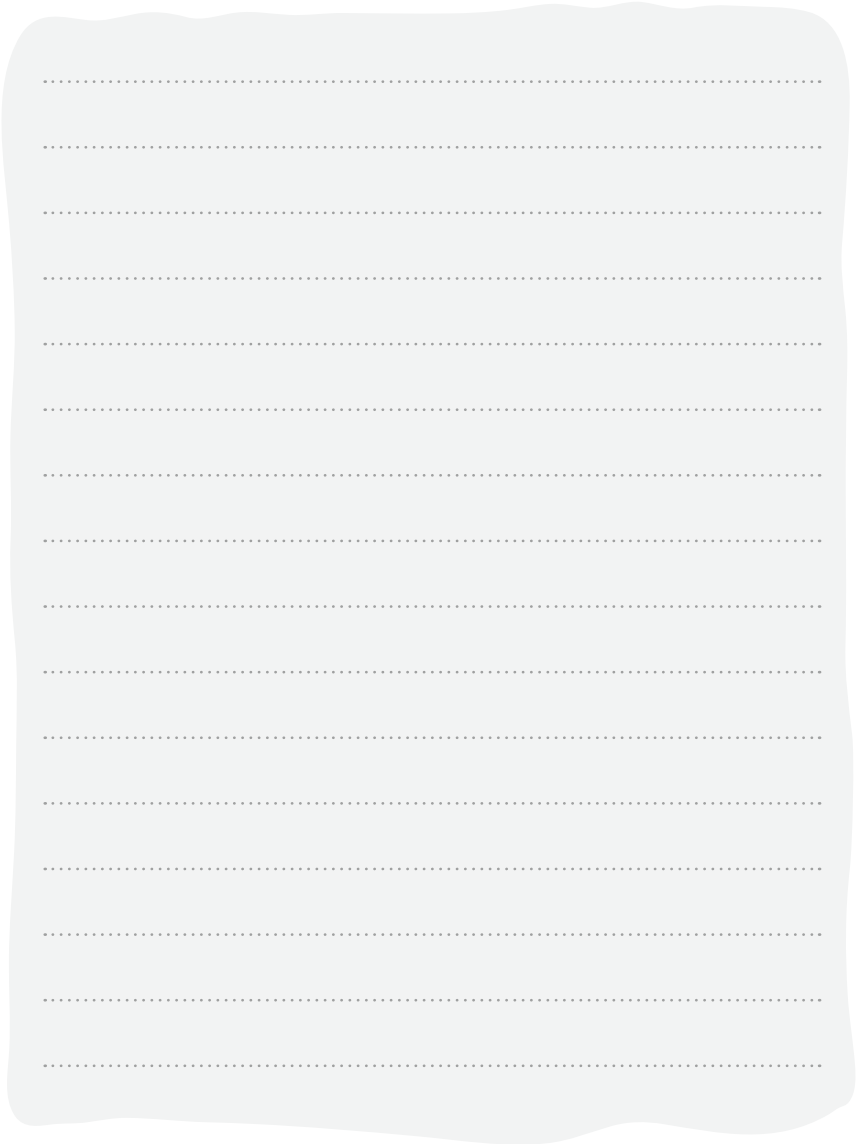
수료식



"청소년 도슨트가 들려주는 박물관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어보았나요?

우리 친구들도 국립김해박물관의 유물에 대하여 느낀점 또는 이야기를 적어보아요.

A large, light gray, rounded rectangular area containing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 청소년 도슨트가 들려주는 박물관 이야기 -----

발행인 | 김정완

발행처 | 국립김해박물관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

전 화 | 055-320-6800

홈페이지 | <http://gimhae.museum.go.kr>

ISBN | 979-11-85106-04-5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 11-1371000-000618-01

총 괄 | 이양수

기획·진행 | 신자혜, 장광호

교육지원 | 강지영, 설정인

인 쇄 일 | 2015년 2월